

축산 뉴우스

세계가금박람회에 많은 양계인 참가

- 본회 회장, 부회장 등 40여명 참가 -



〈이상윤 회장〉 〈박준영 부회장〉 〈신홍중 부회장〉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개최된 바 있는 세계가금무역 박람회에 국내에서 많은 시찰단이 다녀왔다.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 박람회에는 본회 이상윤회장을 비롯해 신홍중부회장, 박준영부회장을 위시해 마니육종의 김영환사장팀이 20명, 한협축산(코브농장 초청)팀이 8명, 고창양계팀(세이바 초청) 5명과 하바드 농장초청, 아바에이카 농장초청으로 한일차두흥사장팀 등 40명에 달하는 인원이 이번 행사에 참가한 바 있다.

이번 세계박람회 참가를 통해 많은 양계인들이 새로운 선진 기술과 개발된 선진경영기술을 보고 배우는 기회를 통해 우리의 양계산업도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의 사료곡물감산과 한국의 축산

농경연뉴스 2월호에서 부원장 金榮鎭박사는 표제의 시론에서 우리의 축산물수급은 불행히도 미국의 사료곡물사정에 좌우되는 현실이며, 1973-74년 사이에 일어났던 세계곡물 파동으로 인해서 국제옥수수가격이 한때 톤당 62달러에서 187달러로 3배가 뛰어 올랐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양돈 및 양계산업은 불가피하게 재편성되지 않을 수 없는 쓰라린 경험을 체험한 바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사료곡물감산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 사료곡물가격 폭동에 대비하여 사료가격안정기금의 적립을 확대하고,
2. 전체 육류소비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증가되지 않도록 육류가격을 고려하며,
3. 국내 부존자원의 사료이용을 위한 연구가 정책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서울미원, 경영관리 연수회

- 위탁점 경리사원을 대상으로 -

서울미원(대표 임철수)에서는 지난 1월 26일부터 3일간 남한산성에 있는 세림문화재단 연수원에서 위탁점의 경리사원을 대상으로 부기이론과 장부기장 및 세무관계실무에 관한 연수회를 실시하여 31명의 사원이 성공적으로 수료하였다.

본 연수회는 미원 5단계 수익계획의 일환인 위탁점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3번째 실시된 것으로서 앞으로 수준을 높여가면서 계속 실시될 예정이다.

돈콜레라 백신 190만두분 무료공급

농수산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에 크게 만연되었던 돈콜레라의 재발에 대비 2월 한달동안 긴급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돼지 190만두분의 돈콜레라 예방백신을 무료 배부기로 했다.

양계관계인 좌담회 개최

- 양계협동조합 회의실에서 -



(강희구 조합장)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조합장 강희구)은 지난 2월 1일 오후 2시 당조합회의실에서 양계관계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농수산부 가공이용과 관계관, 학계, 연구계, 양계협회 전무, 현대양계사 사장, 조합임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지난 78년 12월 인가되어 82.9.17 기구확대 개편된 바 있는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의 연혁 및 83년도 조합중점사업계획 설명과 조합의 양계산물 유통개선사업 계획 소개와 관계요로의 자문을 청취한 바 있다.

동 조합은 조합원들이 생산 및 출하조절로 파잉생산방지와 소비자에게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고 있으며, 계란의 상품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상품을 출하하는 조합원의

질병예방과 중간거래시 파란방지를 위해 1회용 종이난좌사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식란의 포장판매, 계란의 상품성 향상등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농수산물 표준거래단위 마련

정부는 농수산물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농수산물규격화(規格化)추진법을 제정키로 하고 이에 앞서 상반기중에 쌀·보리·고추·쇠고기·닭고기등 50여개 농수산물에 대한 표준거래단위를 설정할 방침이다.

농수산부의 이같은 계획은 농민이 농산물의 제값을 받도록하는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를 실현, 유통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농협·축협 및 수협에 구성된 거래단위 표준화 협의회를 활용하여 상반기중에 품목별 표준거래단위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표준거래단위는 크기에서 대(大), 중(中), 소(小)로 나누고 품위는 특품·상품·중품으로등급화 시키는 한편 단위는 「미터」법으로 통일하며 포장용구를 규칙화 할 방침이다.

한편 농협은 농산물의 표준 규격화를 79년부터 실시, 82년말까지 쌀·보리·포도·복숭아·밤등 25개품목을 표준규격품으로 지정하여 유통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농수산부의 표준설정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 농산물=쌀·찰쌀·보리쌀·밀·콩·팥·녹두·옥수수·무우·배추·양배추·파·양파·시금치·당근·감자·고구마·상치·호박·오이·전고추·건마늘·참깨·들깨·생강·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꽃감·밤·꿀·토마토·참외·딸기·땅콩등

◇ 수산물=김·건멸치·건오징어·건미역·굴비·북어·새우젓·멸치젓 및 주요선어류(鮮魚類)

◇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

축협 자율정화 결의
- 조합원의 주인의식도 고취 -

축협중앙회는 지난달 25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김일로회장을 비롯한 전국 1백26개 조합장 및 임직원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협자율정화 결의대회를 갖고 ▲의식구조개혁 ▲부정·부조리척결 ▲친절봉사 등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새축산상정립을 다짐했다.

畜協은 이 자리에서 임직원 및 8만조합원에 대한 정신 및 경제교육의 확대실시와 세부실천계획을 시달하고 조합원의 1일 명예 조합장에 제 실시로 조합원의 주인의식을 고취해 나가기로 했다.

畜協은 또 사랑방좌담회를 실시, 조합원간의 일체감을 조성하며, 조합장을 민원상담 책임자로 지정하는 등 봉사자세를 체질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영북축산연합회 결성
- 신속한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 위해 -



△ 영북축산연합회 현판식

철원 및 포천북부 지역내의 전 축산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해 11월 20일 창단식을 가진바 있는 영북축산연합회는 그 지역내의 회원간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유통의 무질서에서 오는 경영적 손실을 줄이고자 이번에 동 연합회를 조직하여 지난 1월 27일 영북농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주로 양계업을 주업으로 하는 150여명의 양축가들이 참석하여 임원선출을 한 후 현판식을 가졌다.

선출된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 장 : 김익홍

부회장 : 신은균, 이용적

이 사 : 이철선, 고의영, 전호영, 오국환, 윤홍호, 신재환, 박금석, 김창봉, 윤완호, 김기태

총 무 : 김봉기

세계축산학회 총회 개최
- 8월 14일, 일본 도쿄에서 -

한국축산학회(회장 송계원)는 오는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 5회 세계축산학회(WAAP)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 국내의 50여명의 학자가 참석하는데 따라 회원 및 관련업체에서 참석을 희망하는 분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학술적인 행사 이외에도 선진 일본의 사료공장, 축우목장, 양계장, 양돈장, 축산관계 대학 등을 돌아보게 되는 이번 행사는 다수의 회원 및 축산기술자가 참가희망을 해 국위선양과 국제적인 한국축산의 면에서 많은 기대가 예상된다.

희망자는 초청장, 여권수속 등 업무의 추진을 위해 오는 3월 15일까지 참가신청금(10만원) 및 학회등록금(3만엔)과 함께 신청서를 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752-6917)나 한국축산학회(☎수원 7-2111~7), 롯데관광(☎273-4161~9)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계축산학회(WAAP)에는 서울농대 한인규 박사가 한국이사로 되어있다.

'83 가축방역 사업
-양축농가와 시행기관의 협조로 -

농수산부는 '83 가축방역계획을 확정, 시행기관에 시달하고 양축농가와 시행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방역효과를 높여 양축농가의 경영손실 방지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당부하였으며 '83 주요사업 내용은 <표>와 같다.

구분 사업명	축종	세부사업명	계획량
예 방 주 사 검 진	소	우역	20천두
		탄저·기종저(훈합)	740
		기종저	670
	돼지	콜레라	3,900
		일본뇌염	800
		위축성비염	20
		전염성위장염	70
	개	광견병	510
		계	6,730
	소	우폐역	1
우결핵		160	
부루세라병		80	
"(MRT)		20	
계		1,300천수	
닭	추백리	1,300천수	
	마이크로푸라즈마	130	
계	계	1,691	

천호, 마니커종계 대만 수출
-연간 2만~3만수 수출 예정-

지난 1월 14일, 21일 두차례에 걸쳐 대만 안타종계장으로 마니커종계 4,400수를 수출하므로써 '80년부터 인도네시아, 홍콩에 마니커종계를 수출한데 이어 이번에 대만에 종계를 수출함에 따라 마니커 육용종계가 동남아시아에 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연말 대만에서 한국의 종계 구입차 내한했던 C. S. Lin 씨의 3인의 요청에 따라 연초에 수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번의 마니커종계 시험사육결과가 양호하면 연간 2만에서 3만수까지 수입해 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적은 물량이지만 이번의 수출은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양돈업진출 활발
-두산·롯데그룹서도 참여 움직임-

돼지해에 육가공제품의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재벌기업들의 양돈업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햄·소시지 등 육가공업에 참여, 원료돈육을 그룹내업체 또는 자체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삼보그룹의 제일제당, 벽산그룹의 대한종합식품인데 올해 두산, 롯데그룹등이 이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두산개발은 1만마리 규모의 양돈사업계획을 수립, 연내 돈사신축과 함께 종돈 3백마리를 확보할 계획이며, 두산농산도 오는 연말까지 5천마리 규모의 양돈장을 지을 예정이다.

또 이미 육가공제품을 시판중에 있는 롯데그룹의 롯데햄, 롯데우유는 원료돈육의 공급목적으로 양돈사업에 참여할 계획아래 양돈장의 부지물색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제일제당 롯데햄, 롯데우유는 80년대들어 육가공사업에 참여, 점차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데 제일제당의 경우, 원료돈육의 대부분인 1일 2백마리를 용인자연농원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이천공장의 육가공시설증설로 수요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74년 햄등 육가공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대한종합식품은 현재 2천마리 규모의 양돈장을 운영, 원료돈육의 40%정도를 자체 조달하고 있다.

한국인 식생활 개선 호조

- 콩·야채·육류 소비 크게 늘어 -

지난 82년중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보리·밀 등 양곡소비량은 1백92.2kg으로 전년인 81년의 1백96.0kg보다 3.8kg(3%)가 줄었다. 그러나, 감자, 고구마를 비롯, 쇠고기등 육류와 야채, 과일 소비량은 주식대용으로 급격히 늘어나 상당한 식생활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육류소비량(정육기준)은 ▲쇠고기가 81년중의 1인당 2.4kg보다 12.5% 증가한 2.7kg ▲돼지고기는 81년의 5.4kg보다 11.1% 증가한 6kg ▲닭고기는 81년의 2.4kg보다 4.2%가 늘어난 2.5kg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전년도의 10.2kg보다 9.8% 증가한 11.2kg이었다. 이같은 소비실적은 역시 당초예상보다 0.3kg이 증가한 것으로 식생활이 그만큼 과학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1인당 우유 소비량은 81년의 14.4kg보다 0.2kg이 증가했으나 계획 16.3kg보다는 1.7kg(10.4%)이 감소했고 계란은 81년의 1백14개보다 1개가 늘었다.

일본의 경우 지난 80년말 현재 1인당 쌀소비량이 78.9kg에 불과, 지난 80년 한국의 1백32.4kg보다 40.4%인 53.5kg이나 적게 소비했고 육류는 일본이 1인당 22.4kg을 소비, 당시 우리나라의 11.3kg의 2배 수준을 소비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외국(81년중 호주 44.2kg, 日本 5.0kg)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나 쇠고기 소비에 편중돼 있는 실정이다.

소, 돼지고기가격 하락세

- 수입고기값 인하조정후 -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던 쇠고기 및 돼지고기가격이 지난 1월 20일째부터 하락세를 보이면서 출하량도 크게 늘었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현재 서울 3개 축산물도매시장의 돼지고기 경락가격은 kg당 3천2백원 수준이었으나 21일에는 3천원으로 2백원이 떨어졌고, kg당 5천8백원을 웃돌던 쇠고기 경락가격도 5천4백원으로 떨어졌다.

육류가격의 안정세 회복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달 18일 수입쇠고기 소비자가격을 6백g 당 3천2백원에서 2천9백원으로 인하조정 한뒤 상인들이 구정수요에 대비해 비축했던 재고분을 서둘러 출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수산부는 연초부터 돼지고기값이 올라 다른 물가에 자극을 줄 것을 우려, 수입쇠고기 값을 인하하고 방출량을 하루 1천마리 수준에서 2천마리 이상으로 확대해 소비를 일부 대체토록 하고 농협과 축협 및 각시·도를 통한 계통출하를 늘려 돼지고기값을 6백g 당 2천원~2천2백원 수준에서 안정시키고 있다.

농수산부는 돼지고기 물량부족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작년 12월 현재 암돼지수가 43만9천마리로 적정선 39만마리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오는 4월~6월경에는 오히려 과잉출하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사육농가에 조기출하를 당부했으며 이같은 조치에도 돼지고기값이 계속 오를 때는 수입도 검토키로 했다.

농수산부는 또 양돈농가들이 전염병이 돌아도 개인적인 손실을 우려해 발생사실을 감추어 큰 피해를 물고오는 사례를 막기위해 돼지의 도살처분명령 보장제를 도입, 전염병에 걸린 돼지를 도살명령에 의해 처분할 때는 시가의 50%를 보상해 주기로 하고 축산진흥기금에서 2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아울러 축협의 瑞山목장에 연간 10만마리를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양돈사육장을 만들어 시기별, 계절별로 가격진폭이 큰 돼지고기 수급을 안정시켜 나가기로 했다.

낙농제품 재고산적 - 국제시장 가격체계 위협 -

美國정부가 보유중인 낙농제품재고가 급증함으로써 세계가격체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국제낙농협의회(IDA)가 내놓은 세계낙농제품시장에 관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EC·北美·뉴질랜드·濠洲의 7월 1일현재 탈지분유재고는 1백 8만 6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50%나 증가된 상태이다.

버터재고도 11% 증가된 53만 7천톤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수량은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버터와 분유재고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주 GATT 회의에서 美國은 EC가 농산물 수출보조금 중지를 위한 회의에 진지하게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남아도는 낙농제품을 시장에 투매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레이건정부는 EC수출 농산물이 보조금을 받아 제 3세계 및 東歐등 美國의 잠재시장을 잠식해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주요 각축장은 蘇聯시장.

지난해 蘇聯은 세계 최대의 단일 수입국으로서 우유 2백 50만톤에 상당하는 낙농제품을 사들였다.

폴란드도 美國과 EC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의 버터와 분유를 사들이고 있다.

산유국들도 대형고객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우유 9백만톤에 해당하는 낙농제품을 수입했는데 이는 70년대 중반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금년들어 지난 상반기중 세계 수요는 줄어들었다. 외화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東歐와

개도국이 수입을 감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EC에서는 PR활동을 통해 수요를 늘리고자 하고 있지만 금년에는 우유제품의 家内소비가 0.5~1%이상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美國에서는 동물먹이를 생산하는 기업으로부터 분유구매는 2%정도 늘어날 전망이지만 버터소비의 식생활습관의 변화로 줄어들고 있다.

세계낙농제품 시장에서 최근 이와같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지난해 美國의 생산이 3%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면 EC 지역에서는 0.4%증가, 기타 유럽국가 뉴질랜드 濠洲에서는 1%의 증가로 약간 덜한 편이다.

그런데 美國은 금년도 생산증가를 둔화시켜 가고자하는 한편 이번에는 유럽의 생산이 1%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세계우유생산량 4억 7천만톤은 수요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이며 개도국과 東歐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 과잉상태는 훨씬 심해질 것이다.

81년에는 우유 2천 5백만톤에 해당하는 낙농제품이 국제적으로 거래됐다.

그러나 80년에 최고수준에 달했던 EC의 對개도국수출은 현재 감소추세에 있다.

지난해 美國은 가장 적극적인 수출국으로서 對개도국 수출총액을 두배로 늘렸다.

對개도국수출은 80년에는 미미한 실태였으나 최근에는 급증추세에 있다. 폴란드는 3만톤을 수입했으며 멕시코는 금년중에 7만 5천톤을 도입키로 계약했다.

EC는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일정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정해진 양을 사들일만한 잠재적 구매국과의 「기본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美國이 「상품판매 신용회사」를 통해 싼 금리로 판매를 지원함으로써 재고를 매각하기로 결정하면 그러한 계획은 붕괴되고 만다.

농산물수입 크게 감소

- 10억 6 천만 \$, 쇠고기는 2 배늘어 -

농작물의 풍작으로 올해 양곡과 비축농산물의 수입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사료·생축·축산물의 수입이 최고 2 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82년도 양곡·사료·생축·축산물 비축농산물 기타 농산물등 전체 농축산물의 수입규모는 10억 6 천 4 백 83만 달러로 81년 같은 기간중의 17억 2 천 9 백 75만 달러보다 무려 38.5%인 6억 6 천 4 백 92만 달러나 감소해 지난 77년의 10억 8 천만 달러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농축산물의 수입감소는 각종 농산물이 풍작을 이뤄 81년경우 연간 8억 5 천만 달러를 차지했던 쌀(현미)도입이 82년 들어 전년대비 85.5%나 격감했고 참깨·땅콩등 비축농산물의 수입도 풍작에 따른 수입규모축소로 80%나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곡중에서도 소맥은 94%, 옥수수 1 백 3.2%, 콩류 1 백 5.5%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옥수수, 수수, 콩등 작물은 사료용 4억 2 천 1 백 15만 달러를 수입, 전년동기대비 수출량으로는 44.4%, 금액으로는 10.8%가 증가했는데, 수수는 수량이 3 백 30%, 금액은 3 백 10.7%나 늘었다.

젓소·육우등 생축수입은 금액상 81년의 1 천 8 백 40만 달러보다 2 배로 늘어난 3 천 6 백 85 만 3 천 달러였다. 생축수입량의 대폭적인 증가는 정부가 쇠고기 자급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정부자재의 수급조절용 비육우 젓소를 확보키로 했고 농가부업용 육우입식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쇠고기수입량이 40%나 늘어난 것은 그동안의 쇠고기수요증가와 가격조절용 비축쇠고기확

보 때문이다.

쇠고기는 9 천 1 백 85만 달러 (3 만 8 천 9 백 40 톤) 어치를 수입, 40%가 증가했다.

참깨 땅콩등 비축농산물의 수입은 참깨의 경우 3 백 80만 달러 (5 천톤)를 수입, 전년같은 기간의 8 백 32만 달러 (1 만톤)의 45.6%에 불과했고 땅콩은 당초 5 천톤수입계획을 세웠으나 전혀 수입실적이 없었다.

농수산물규격화 촉진법

- 유통구조 근본적 개선 위해 -

농수산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키위해 쌀, 보리, 고추, 마늘, 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농수산물에 공산품의 KS표시와 같은 KAS(농수산물국정규격) 표시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규격화 촉진법을 올해 제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용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수산부에 의하면 거래단위가 복잡하고 규격등급 등이 들쭉날쭉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키위해 올해 상반기중으로 품목별 표준거래단위를 정하는 한편 농수산물규격화촉진법을 새로 제정, 장기적으로는 농수산물 국정가격(Korea Agricultural Standard)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대소곡물 수출증대

미국정부와 농민은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사료곡물 재고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1983년도말의 사료곡물재고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사료곡물 경작제한 20% 발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달들어 레이건 미 대통령은 내년도 소련에 대한 곡물수출한도를 2,300 만톤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제유전자 동물이식 성공

- 파리지충, 식물·가축·인간에 이용가능 -

미워싱턴의 카네기연구소 과학자들은 무성생식된 유전자를 복합유기체의 유전물질에 삽입시켜 이 유전자로 하여금 후세대들에게 작용토록 하는데 사상 최초로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앨런·스프레들링박사등 카네기연구소의 두 과학자는 사이언스지 최신호에서 이같은 실험이 프루트 플라이(과실파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말하고 이 실험의 성공으로 이같은 유전자이식기술이 장차 식물·가축, 나아가서는 인간에까지 이로운 변형을 가져오는데 사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두 과학자는 이같은 기술의 개발로 유전자가 어떻게 조절되고 복합동물의 체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관한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 기술은 아직은 구체적인 단계에 와 있지 않는 의료활동에도 응용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믿어진다고 이 과학자들은 설명했다.

스프레들링박사와 루빈박사는 실험과정에서 사용된 과실파리유전자를 복제하는데 박테리아를 이용하기 위해 지난 70년대에 개발된 재결합 DNA로 알려진 유전자 이식기술을 동원했다.

지금까지 박테리아 및 효모와 같은 단일유기체에 대해서는 유전자이식이 성공했지만 무성생식된 유전자를 파리와 같이 보다 복합적인 유기체의 염색체에 삽입시켜 이 유전자의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훨씬 어려운 작업으로 알려져 왔다.

스프레들링박사와 루빈박사는 과실파리에 유전자를 이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과실파리에 자연생산된 유전물질의 전위요소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료협회 정기총회 개최

- 부회장 2명 및 임원 5명개선 -

한국사료협회(회장 정태원)는 지난달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5명의 임원을 개선하는 한편 4명의 비상근부회장을 2명으로 축소조정했다. 사료협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정태원(홍성사료·유입), ▲상근 부회장 전웅진 ▲비상근부회장 정삼범(우성실업·유) 차두홍(한일사료·유) ▲전무이사 권배(유) ▲이사 강태현(중앙축산·유) 이수빈(제일제당·유), 민중기(대한제당·유), 한호섭(부국사료·신), 강성배(진양사료·유), 김재수(한성사료·유), 마영호(보진사료·유), 장세호(동서농산·신), 김상태(대한사료·유), 오관영(제일사료·신), 이의선(금성물산·유), ▲이체언(두산곡산·유)이철용(경기사료·유), ▲감사 장인환(삼화물산·유),

육가공협회 발족

- 8개회원사대표 간담회 가져 -

한국육가공협회가 오는 2월중 발족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8개 육가공업체 대표들은 간담회를 갖고 2월중 협회발족을 위한 창립총회를 갖기로 합의한데 이어 초대회장은 양승규 상지식품사장을 추대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사대표들은 육가공업계가 연간 6백억원대의 새로운 육시장으로 발전하기까지는 개척자의 어려움을 감수한 각 업체의 피나는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협회를 통해 보다 긴밀한 협조와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협회가 창립되면 정부와의 교량역할뿐만 아니라 현안당면과제인 돈육의 안정적공급을 위한 원료육의 수입과 육제품의 학교급식 추진문제들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육제품소비를 축산업안정차원

에서 공급키로하고 국민식생활개선과 건강증진에도 일익을 담당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업체는 ▲진주햄소세이지 ▲한국식품 ▲상지식품 ▲대한종합식품 ▲한국냉장고 ▲무영햄 ▲제일제당 ▲롯데햄유유등 8개업체대표가 참석했다.

올해 농업용수 부족우려 -개발사업 조기실시키로-

지난 여름에 겪은 30년래의 가뭄여파가 겨울에까지 미쳐 전국 저수지의 저수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농수산부가 전국의 2천72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평균저수율은 74%에 머물러 평년의 77%보다 3%포인트, 전년도 88%보다는 무려 14%포인트나 뒤지고 있다.

앞으로 눈이 온다고 해도 녹아서 용수화되는 비율은 적설량의 10%에 불과해 올봄에 농업용수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특히 곡창인 전남은 저수율이 59%, 전북은 68%밖에 안돼 다른 지역보다는 물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하다.

농수산부는 이에 따라 가을철 농한기를 이용해 소형우물 5만개를 새로 파고 올해 농업용 개발비를 작년보다 42%가 늘어난 1천4백85억원으로 책정, 조기 집행함으로써 봄가뭄에 대비함과 아울러 농촌경기부양을 꾀하기로 했다.

인공수정으로 가축개량

인공수정을 통해 쇠고기생산량과 산유량을 늘린다.

이는 혈통이 우수한 씨받이 소(種牝牛)의 정액을 받아 인공으로 수정시킴으로써 태어날 후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선대의 우수한 형질을 이어받을 경우 육우나 유우의 단위당 생산성이 현저히 증가한다.

축협중앙회는 오래전부터 인공수정을 통한 가

축개량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작년에 70만마리에 이어 금년에도 한우·유우·육우등 모두 76만6천마리의 소에 인공수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우수한 씨받이 소의 정액 1백34만6천 스트로를 생산공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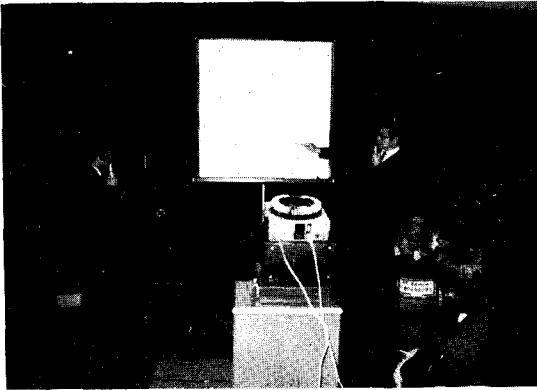
9일 축협에 따르면 가축의 인공수정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은 현저하다는 것인데 인공수정을 통한 가축의 개량효과를 각부위별로 조사한 결과 한우의 경우 체중이 6개월생은 보통 1백33kg에서 인공수정을 통한 개량종은 1백47kg으로 향상됐으며 3년생은 인공수정한 소가 4백39kg으로 자연생의 4백4kg보다 35kg이 더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차이는 몸크기·가슴둘레·엉덩이폭 등에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슴·허리 굵기등 연한 살코기 부위의 개량률이 비교적 높아 쇠고기생산증대와 농가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젖소의 산유량도 인공수정실시 이전에 비해 현저히 증가했는데 이는 사육기술의 향상도 중요한 원인이겠지만 인공수정을 통한 개량효과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번식측면에서 소의 경우 한마리의 수소가 일생동안 증부는 5백마리수준에 불과한데 인공채취를 통해서 10만마리까지 증부를 할 수 있으며 수태율도 한우는 73%, 유우는 63%·육우는 73%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인공수정사업은 지난 62년에 3만1천마리에 불과하던 것이 71년에 15만6천마리, 80년에 47만8천마리, 81년에 60만5천마리, 그리고 작년에 69만8천마리로 증가돼 왔으며 금년에 한우 50만마리, 유우18만마리, 육우 8만6천마리 등 모두 76만6천마리에 인공수정을 시킬 계획이다.

과학축산 순회 세미나
- 티아무틴의 효능 및 경제성에 대해 -



△ 전국 순회세미나에서 티아무틴과 티아설페의 효과와 경제성에 대해 강연하고 있는 산도즈사의 라베르박사

과학축산(대표 이태일)은 지난 1월 14일과 17일, 18일 전주, 부산, 대구지역에서 400여명의 사료업계 인사 및 양축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산도즈사와 공동으로 특히 돈폐염, 돈적리, 증체축진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티아무틴과 위축성 비염에 까지 효과가 높은 티아설페의 경제성에 관한 전국순회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산도즈사의 연사로 참석한 라베르박사는 수의학의 권위자로 티아무틴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기에 특히 주목을 끌었다.

한편 19일에는 수원 뉴서울그릴에서 임상병리연구회 회원과 약품업계 및 축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란츠박사와 라베르박사의 강연과 티아무틴에 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돼지 살처분하면 보상금 지급
- 양계업도 보상제도 시급 -

양계인이면 지난해의 ILT(전염성후두기관염) 피해를 잊을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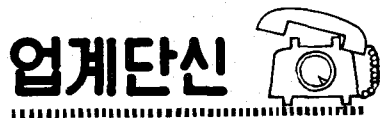
82년 2월 3일 강화도에서 처음 발병이 확인되었는데 삼시간에 전국으로 전파되어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지금까지도 계란과 닭고기 생산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계속 담당하고 있다.

강화도 그것도 조그만 섬에서 발병하였고 섬 밖으로 나오는 교량만 차단하고 병계를 살처분하였으면 이렇게 큰 피해는 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백신값의 일부만으로도 살처분 병계를 보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ILT 뿐이 아니고 모든 전염성 질병이 발병하면 법정전염병이건 아니건 간에 우선 닭장사를 불러 판매하여야 하고 닭장사를 통해 전국으로 고속도로를 통해 일일생활권이 실감나도록 급속히 전파된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신고하면 피해가 더욱 크고 귀찮아지기 때문이다.

작년 가을에 양돈업계에 불어닥친 돈콜레라도 비슷한 경우이다. 다행히 돼지의 경우 농수산부장관 고시로 금년부터 돼지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돈콜레라에 감염된 돼지는 살처분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에서 이미 시행되어 왔고, 돼지에 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닭에 대해서만 이러한 보상대책이 없는데 양계에서 오히려 이런 제도가 더욱 시급한 것으로 양계업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 농수산부 인사이동 : 농수산부는 김정룡 전 사료과장을 국제협력과장으로 이범섭씨를 사료과장에 김동태 전 축산과장을 농정과장에 각각 발령했다.

○ **김영진박사** :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김보현) 은 지난 1월 20일의 정기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마련된 부원장직에 김영진 연구위원 (전 농수산 차관보) 을 임명했다.



〈김영진 박사〉



〈차두홍 사장〉

○ **한일농원 (대표 차두홍)** : 동농원 차두홍 사장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0일간 종계수출 및 돼지수입관계 등으로 동남아시아 3개국 (대만, 태국, 홍콩) 을 방문하고 귀국했다.

○ **대농축산 (대표 정정치)** : 가축약품 및 부속기구류 도산매상업체인 대농축산이 지난달 15일 개설되었다.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심곡1동 671-1

전화 : 62-2544

○ **한국동물약품 <주> (대표 김호석)** : 사세확장으로 판매량증진과 좋은 제품생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신입사원 특채.

학술부 김진만 (서울대 수의대졸)

영업부 이기수 (연암축전 축산과졸)

유병원 (연암축전 축산과졸)

정상원 (연암축전 낙농과졸)

생산부 유선종 (전 녹십자수의약품)

○ **녹십자수의약품 <주> (대표 장인상)** : 동사는 사세 및 판매확장을 위해 주소를 변경했으며 또한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14명의 신입사원을 선발, 각 부서에 발령 배치했다.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31-29

전화 : 582-9181~5

기획부 : 황문하 (서울대 수의대졸)

장동선 (서울대 수의대졸)

김지철 (영남대 축산학과졸)

정순현 (강원대 축산학과졸)

영업부 : 강태진 (건국대 낙농과졸)

강형래 (경상대 낙농과졸)

최창규 (충북대 축산학과졸)

최상림 (연암축산전문대 축산학과졸)

김형근 (연암축산전문대 축산학과졸)

생산부 : 조기환 (경북대 낙농학과졸)

유제일 (전남대 수의학과졸)

강병근 (충북대 농화학과졸)

박인준 (안성농업전문대 축산학과졸)

박태하 (예산농업전문대 낙농학과졸)

○ **대한제당 <주> (대표 민중기)** : 대한제당 <주> 무지개사료는 단일공정규모로는 우리나라 사료업계에서 최초로 '82년 12월의 사료생산실적 30,000M/T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또한 동사는 모범사원 9명과 3만톤 돌파에 공이큰 유공사원 5명에게 각각 표창했다.

▲ 82년도 모범사원

김수근 (총무부), 정한모 (업무부), 김영희 (생산부), 이동기 (생산부), 김영훈 (생산부), 최철기 (사료제품과), 유한일 (사료자재과), 유병욱 (사료생산과), 이만식 (사료품관과)

▲ 유공사원

박기호 (사료생산과), 한창동 (사료생산과), 조낙준 (사료제품과), 김억근 (사료제품과) 정석주 (사료자재과)

○ **종합축산사 (대표 조성용)** : 2월 2일부로 취재부에 박윤만 (방송통신대 농학과졸) 씨를 특채했다.

○ **서면가축약품상사 이전** : 사세확장에 따라 업무원활을 위해 사무실 이전.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1동 485-1

전화 : (552) 3002~3003 야간 (552) 2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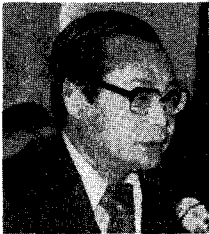
○ **신일화학(대표 홍완표)** : 중앙케미칼에 근무하던 노상석 기획부장이 신일화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한 동사는 업무상 사무실을 1월 9일부로 다음과 같이 이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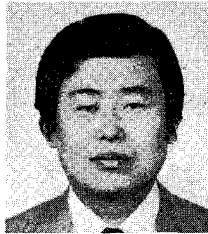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209-35
대신빌딩 308호
전화 : 725-2101

○ **한인규박사** : 한국사료정보센터 회장을 겸하고 있는 한인규박사는 지난 2월 3일 미국으로 출국, 20일 귀국예정이다.

이번에 한박사는 미국 유타주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대학교를 방문하여 한국사양표준제정을 위한 한미공동연구를 추진하며 미국 NRC사양표준제정위원회과도 기술협조문제를 협의한다.



〈한인규 박사〉



〈이헌정 사장〉

○ **대정식품(대표 이헌정)** : 지난 2월 5일 동사는 수육가공장(부설도계장포함)인준을 받아 명실 상부한 식품회사로서 제1공장 건축기공식을 많은 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충남 금산군 제1공장 현장에서 거행했다.

○ **중앙케미칼<주>(대표 김무진)** : 동사는 영국의 미첼코트사와 원료공급 및 기술 제휴하여 신제품 사이퍼-킬러를 3월 말부터 출하할 예정이다.

사이퍼-킬러는 파리, 모기, 진드기 등 해충의 전문살충제로 기존제품보다 독성과 내성이 적은 반면에 8주이상 오랜 살충효과를 나타내는 지속성 살충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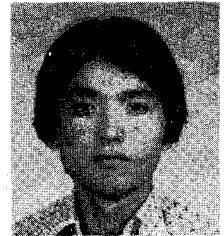
○ **아세아향미양행(대표 강형모)** : 사세확장에 따른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 2월 1일부로 업무용전화를 증설했다. 또한 동사는 전무에 김정웅씨(전 친호통산 전무)를 임용하는 한편 기획부에 김광섭씨(전 친호부회장 기획실)를 특채한 바 있다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81
(대한어머니회관 603호)

전화 : (633) 2621 증설(677) 1499, 1813



〈김정웅 전무〉



〈조태엽 과장〉

○ **현대양계사(대표 김종곤)** : 1월 3일자로 편집의 내실화를 다지려 편집부에 조태엽과장을 특채했다.

○ **남부햄<주>(대표 권태은)** : 무영햄 바베큐를 개발하여 호평리에 발매해 오던 동사는 금번 사세확장 및 발전을 위해 상호를 무영햄에서 남부햄으로 또한 무영농산을 남부농산으로 변경했다.

○ **원선사료<주>(대표 류근제)** : 지난달 15일자로 세원사료가 개명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동사는 류근제 대표이사, 채용길 부사장, 김종진 전무 등 새경영진에 새체제, 새자본으로 새품질의 사료를 출하하고 있다.

○ **한국미생물연구소<주>(대표 한화섭)** : 사무실을 다음과 같이 이전했다.

주소 : 서울 구로구 구로동 413-80 한빛빌딩 303호

전화 : 62-4249·4274, 62-3945(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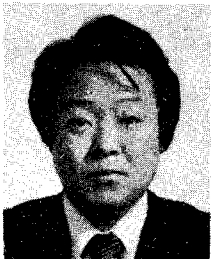
○ **삼우화학<주>(대표 이완상)**: 동물약품전문 메이커인 삼우화학은 사원의 사기양양과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1월 4일자로 대폭적인 승진발령과 표창을 실시했으며 사세확장으로 영업부에 신입사원을 특채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진발령: 최병순 상무이사 정인섭 이사
한상훈 차장 김철중 학술부주임
최운식 생산부주임 조영일 생산부주임
우수사원표창: 이성진(영업부) 김득삼(생산부)
김경숙(생산부)

신입사원: 장궁순(서울대 수의과졸)
안상현(건국대 축산과 졸)

○ **금성제분<주> 사료공장(대표 장명식)**: 지난해 12월 1만 1천 2백톤을 생산하는 사세확장과 함께 83년 1월 1일부로 영업이사에 안오환부장을, 영업부장에 박창규 차장을, 영업기획부장에 유수환차장을 각각 승진발령했다.



〈안오환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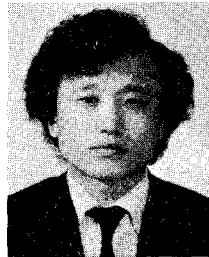


〈박창규 부장〉

○ **삼화약품상사(대표 이병호)**: 지난 17년간 한협축산과 같이 호흡해 온 이병호씨가 오는 2월 25일부로 퇴임하고 동물약품일체(각종 백신 및 수입약품특약점)를 취급하는 삼화약품상사를 개설한다.

주소: 서울시 중구 중림동 129번지 대림빌딩 202호
전화: 392-6915

○ **한국화이자<주>(대표 김중배)**: 동사는 김중상 실장을 1월 7일부로 농축담당 상무로 승진발령하고 지난해 12월 22일 김성린(서울대 축산과졸)씨를 농축부 영업파트에 특채했다.



〈박성재 과장〉



〈김성린〉

○ **한국사료협회(회장 정태원)**: 기획조사부의 과성재씨가 기획과장으로 승진되었다.

○ **박종문 농수산 호주시찰차 출국**: 박종문 농수산부장관이 2월 8일 호주와 뉴질랜드 축산현황 시찰을 위해 출국, 송찬원 축산국장도 수행차 함께 출국했다.

○ **국제태평양가금박람회**: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모든 가금박람회중 2번째로 규모가 큰 국제태평양가금박람회가 올해 59번째를 맞는다.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이 박람회는 오는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데 참가에 뜻이 있는 분은 대한양계협회로(752-6917) 문의하면 된다.

○ **로얄국제농업전시회**: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로얄국제농업전시회가 올해도 영국 커벤티리근교 스톤레이에서 7월 4일부터 7일까지 성대히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매년 관례에 따라 축산은 물론 목초 등 농업전반에 관한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참가희망자는 대한양계협회로(752-6917) 문의바람.